대승경전 연구 새 방법론을 제시하다

주목! 학술서 | 시모다 마사히로의 〈열반경 연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열반경〉의 핵(核)이 되는 경전은 〈원시열반경〉입니다. 이것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대승의 〈열반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열반경〉이 존재합니다. 동질성과 이질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열반경〉에서는 사상적 운동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승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서울 충무로 동국대 불교학술원 강의실에서 열린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선 시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 도쿄대 교수의 강의 중 일부다.

〈열반경 연구- 대승경전의 연구방법시론〉 한국어판(이자랑 譯, 씨아이알)의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렸다. 그만큼 〈열반경 연구〉에 대한 시모다 교수의 강연에 사부대중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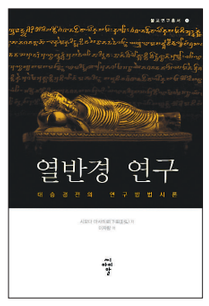
시모다 교수의 〈열반경 연구〉는 자신의 도쿄대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 1997년 처음 발간됐다. 출간 직후 〈열반경 연구〉는 일본 불교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일본종교학회로부터 일본종교학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시모다 교수의 〈열반경 연구〉는 대승경전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연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승경전의 연구방법시론' 이라는 부제에서 나타나듯 시모다 교수의 경전 연구는 텍스트를 해석하고 경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지 않다. 그는 〈열반경〉의 형성 과정 분석을 통해 대승경전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를 짚어낸다.

시모다 교수의 〈열반경 연구〉는 서장부터 결론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6월 1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초청 강연을 하고 있는 시모다 마사히로 도쿄대 교수〈사진 왼쪽〉와 사진 오른쪽은 그의 저서인 〈열반경 연구〉 한국어 판 표지.

문헌 읽으며 내재적인 의미 파악

〈열반경〉 형성 총체적 분석 통해

새로운 대승경전 연구 방법 주장

"경전연구, 텍스트 해석이 아닌 분명한 모습에 다가가려는 시도"

서장은 〈열반경〉 형성과 관련된 전제 요소와 대승불교 교단의 기원 · 경전 형성사 등을 살피며, 1장 '대승 〈열반경〉 이전의 역사' 는 〈열반경〉이 형성되기 전에 불탑 · 사리 숭배 등 열반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고찰한다. 2~4장은 〈열반경〉의 형성과 사상 · 사회적 배경의 변천을 방대하면서도 새로운 독법(讀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저자는 〈열반경〉이라는 하나의 텍스트 안에 다양한 동질성과 이질성이 존재하며, 이를 밝힘으로써 〈열반경〉에 내재한 '운동' 이 무엇인지를 짚어낸다.

〈열반경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대승경전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선이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가 역자 후기서 설명했듯이 시모다 교수가 말하는 '대승경전의 연구방법시론' 은 '방법론에 자각적인 연구의 구체적인 예' 로 읽힌다. 거칠게 말하면 '경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의미를 물으며 문헌 내재적으로 읽는 단순한 태도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 이다.

이런 연구론은 시모다 교수 자신이 경험으로 체득한 것이다. 그는 일찌감치 석사 논문 주제로 〈열반경〉을 선정했고, 일반적 독해로 사상 체계와 내용을 연구하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는 오판이었고, 결국 경전에 담긴 말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음미하며 길을 더듬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무모하다면 무모할 수 있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완성한 것이 지금의 〈열반경 연구〉다.

시모다 교수는 경전연구에 대해 "역사도 풍토도 문화도 동떨어진 텍스트를 상대로 가능한 한 분명한 모습에 다가가려는 시도"이자 "경전의 운동을 운동 그대로 더듬어보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경전에 나타난 '운동을 모방하고 모방하는 것' 이 연구자의 덕목임을 강조한다.

책의 말미, "연구자는 현대에 서 있고, 경전은 역사와 풍토를 사이에 둔 저편에 존재한다. 연구자와 경전과의 접점의 위치는 시대와 함께 반드시 움직여가야 한다"는 시모다 교수의 주장은 동시대 학자들에게 던지는 고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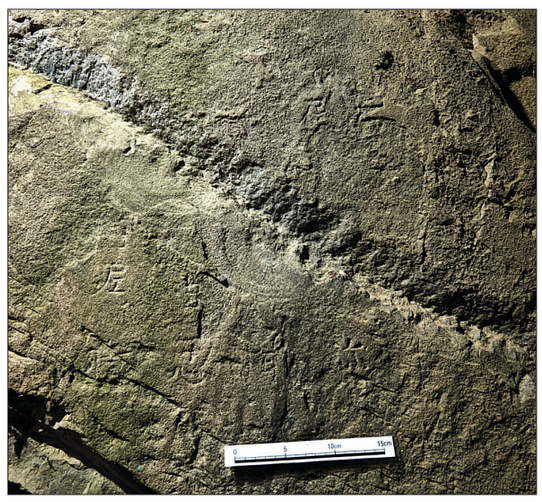
경주 선도산 마애불서 삼국시대 명문 발견

박홍국 교수 답사 중 확인

8자 판독… 비구니 호칭도

석불 명문 중 最古 추정돼





보물 제62호 선도산 마애불〈사진 왼쪽〉과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장이 발견한 명문〈사진 오른쪽〉.

경주시 서악동에 위치한 보물 제62호 선도산 마애불에서 삼국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명문이 발견됐다.

불교고고학 전문가인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장은 "유적 답사 중 선도산 마애불의 오른쪽 암벽에서 약 1.3m 떨어져 나와 성모사 뒷편 처마 아래까지 밀려온 바위면에서 삼국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명문 8자를 판독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당시 박 관장은 동행한 전공 학자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고 가로 5행, 세로 5열 중 8자를 판독했다.

2열 1행은 거(居), 5행은 미(彌)를 새겼고, 3열과 4열 5행에 각각 문(聞)과 사(思)가 있다. 가장 글자가 많이 남은 열은 5열으로, 5열 3~5행에는 차례로 아(阿), 니(尼에서 匕 대신 工), 신(信)이 보인다.

글자의 크기는 세로 3.5~4.5㎝이고, 글자 사이의 간격은 2~3㎝, 옆 글자와의 간격은 약 4㎝이다.

명문은 능숙한 솜씨로 새긴 해서체로 가로 3m, 세로 2.8m, 높이 2.5m의 바위 동쪽면에 남아있지만 표면 박락과 파손이 심한 상태이다.

판독된 명문 중에서 '미(彌)' 는 선도산마애불의 본존이 아미타여래상인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아니(阿)' 는 '아니(阿尼)' 의 이체자(異體字)로 대구 무술오작비(578년, 신라 진지왕 3년)에도 있는데, 비구니를 뜻하는 호칭으로 〈삼국사기〉에도 2곳서 확인된다.

명문을 찾은 박 관장은 "명문의 위치로 보아 마애불의 조상기 명문일 것"이라며 "단석산 신선사 조상명문과 더불어 우리나라 석불 명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새겨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이 같이 잘 새겨진 명문이 있는 것은 당시 선도산 마애불 조성에 많은 공력이 투입됐음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이 명문에 대해 함께 조사한 신라사 전문가 이영호 경북대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명문은 비록 일부 글자만 판독된 상태지만,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진평왕대(597~632년) 선도성모 불사 관련한 역사적 사실일 수 있다"며 "700년 전후에 조성된 마애삼존불의 조상명문(造像銘文)일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금석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 선도산 정상(해발 390m) 가까운 안산암 절벽에 높이 6.85m의 본존불과 화강암으로 따로 조성된 협시보살(4.62m · 4.55m)이 있는 이 마애불은 경주 시내를 내려 보는 곳에 자리한 기념비적인 삼국시대 거대 석불이다.

신성민 기자

토론으로 어떻게 전법할 것인가

불광연구원, 1일 토론 주제 봉축 학술연찬회

토론을 통한 전법 방법론을 논하는 학술연찬회가 열렸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6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마음을 여는 문답 지혜를 나누는 토론' 을 주제로 봉축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처님의 문답과 전법을 살펴보고, 현대의 전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됐다.

특히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법을 위한 문답과 토론기법' 을 통해 구체적인 전법 토론 기법과 교육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백 교수는 "전법을 위해서는 불교의 내용과 문답, 토론기술을 수지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교토론 지도자 양성과 불교토론의 자료화, 체계적 불교문답과 불교토론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문답과 초기불전에 나타난 토론' 을 발표한 신희정 창원중앙고 교사는 붓다의 대화 방법과 초기불전 속의 토론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불교를 붓다의 가르침의 내용과 방법, 붓다의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초기불전에서 보이는 붓다의 대화 방법을 현대 전법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연찬회에서는 유동걸 영동일고 교사의 '문답과 토론의 이론적 원리와 자세' 와 차상엽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의 '대승경전과 논사들의 문답과 토론'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도서관 주최 '길 위의 인문학' 모집

27일까지… 가족 선착순 접수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임중연)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호모 엑스 마키나(Homo Ex Machina) 인간을 꿈꾸다' 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차 '알파고 인간과 겨루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2차 '로봇세상으로의 나들이' △3차 '드론, 하늘에 꿈을 날리다' 및 '백투더 퓨처에서 아이언맨까지' 등으로 이어진다.

다문화 및 소외계층 가정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등을 탐방하게 된다.

또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가족구성원 간 유대를 다지기 위한 가족독후감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주제도서로 선정된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를 가족구성원이 함께 읽고 독후감을 6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포함 가족이면 누구나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문의(02)2260-3457

신성민 기자

굴셀건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80ml × 60팩 13만원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40,800원 (무료배송)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2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하고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